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

- 순서 -

- I. 개요
- II. 성과
-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IV. 이벤트 및 행사
- V. 시상
-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 VIII.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IX. 부산영화포럼(BCF) 결산

1. 개요

1. 기본 개요

- 기 간 : 2011년 10월 6일~14일
- 70개국 307편 상영
- 상영관 : 5개 극장 36개관(총 유효좌석 수 235,907석)
 - 센텀시티 : 영화의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시청자미디어센터
 - 해운대 : 메가박스 해운대

2. 총 관객수 : 196,177명(좌석 점유율: 83%)

3.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월드 프리미어 : 86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45편

4. 아시아필름마켓

- 세일즈 부스 : 총 28개국, 177개 업체, 109개 부스 (BIFCOM 포함)
- 총 스크리닝 수 : 3일간 총 11개국 60편 64회 상영
(마켓 프리미어 33편, 3D 상영 2편)
- 온라인 스크리닝 : 258편의 영화 등록

5.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 참가자 : 17개국 24명
- 교장: 크지스토프 자누시
- 교감: 오석근
- 연출 지도교수: 무랄리 나이르
- 촬영 지도교수: 조니 E. 젠슨

6. 아시아영화펀드(ACF)

- World Documentary Exchange (WDE) in Busan 개최
- 신생 펀드 운영을 통한 다큐멘터리 지원 확대 (DMZ펀드, 부산영상위원회펀드)

II. 성과

1. '영화의전당'의 성공적인 출범

4개의 스크린과 1개의 야외상영장을 갖춘 '영화의전당'은 뛰어난 디자인과 초현대적인 시설로 국내외 영화인은 물론 일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출범을 하였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제전용관의 위용을 과시한 '영화의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적 지위를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 받았다.

2. 필름마켓의 새로운 도약

백스코로 자리를 옮겨 BIFCOM과 함께 개최 된 아시아필름마켓은 전년대비 전시 부스와 배지 등록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APM 미팅과 BIFCOM 미팅도 동시 증가하며 시너지 효과를 보았다. 또한, KPIF, 신화창조 프로젝트 피칭, 한국 콘텐츠펀드 쇼케이스, 필름펀드토크 모두 만석을 이루었고, 올해 새로 시작된 '탈런트 미팅 인 부산'도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이로써 아시아필름마켓은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발굴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

아시아영화펀드,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등을 통해 제작지원을 받은 초청작과 뉴커런츠, 플래쉬포워드 등을 통해 발굴된 신작들은 국내외 언론과 영화제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곧 부산국제영화제가 발굴과 지원에 관한 한 세계적 수준의 영화제임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4. 부산영화포럼의 안정적인 출발

담론과 비평의 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출범한 '부산영화포럼'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되었으며, 부산국제영화제가 학술과 비평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향후 '부산영화포럼'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 차별화되는 핵심 행사, 아울러 영화제의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5. 영화문화유산 보존과 다큐멘터리 네트워크 구축의 새로운 전기 마련

영화제 기간 중 '아시아 고전영화 복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아시아 다
 큐멘터리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 활로 개척을 위해 유럽, 미대륙, 아시아 3개 대륙을
 대표하는 영화제 및 기구 간에 'WDE(World Documentary Exchange)'라는 이름의 범
 대륙 간 다큐멘터리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보다 강력한 아카이브와 다큐멘터리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다.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총 참석인원	11,268명
국내	4,482명
해외	765명
시네필	1,999명
마켓	1,080명
부산영화포럼	502명
프레스	2,440명

** 마켓과 포럼의 경우,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한 배지 발급자에 한함

IV. 이벤트 및 행사

- 마스터 클래스 4회 / 핸드 프린팅 4회
- 오픈 토크 5회 / 야외무대 인사 11회
- 아주담담 13회
- 세미나 6회 (BIFF 아카데미)
-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이야기 2회
- 시네마투게더 13팀
- 관객과의 대화(GV) 290회
- 기자회견 총 13회
- 개별인터뷰 총 165회

V.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 <소리없는 여행> / 모르테자 파르샤바프 (이란)

심사평 :

새로운 영화의 트렌드를 창조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때론 불안하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이다. 모든 배우들이 대본에 충실한 연기로 작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시적 영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상작 : <니뇨> / 로이 아르세나스 (필리핀)

심사평 :

향수 어린 과거 세계의 몰락을 통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이 번영하였음을 보여준다. 굉장히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와 현대사회에 대한 탁월한 해석이 흠잡을 데 없이 조화를 이루며 가족 대하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윤판

- 심사위원 : 오다기리 조, 오정완, 올리비에 페레, 지양 웬리

2. 플래시 포워드상

수상작 : <그곳> / 귀도 롬바르디 (이탈리아)

심사평 :

올 해의 플래시 포워드상에는 현대 이민 문제를 다층적이면서도 단순하게 풀어 낸 작품을 선정했다. 귀도 롬바르디 감독의 <그곳>은 진실한 연민을 품고 있는 공동체

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플래시 포워드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질리안 암스트롱

- 심사위원 : 안나마리아 마린카, 전수일, 토마스 하일러, 프리드릭 토르 프리드릭슨

3. 선재상

(아시아) 수상작 : <그를 기다리는 카페> / 뱅캣 아무단 (인도)

심사평 :

오늘날 인도 사회의 현실을 고요한 목격담을 통해 색다른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작품이다. 강렬한 분위기와 색채는 단 10분 안에 간결하고 능숙하게 작품을 풀어낸다.

특별언급) <스스로 해보세요> / 요시노 코헤이 (일본)

심사평 :

이 영화는 현대의 일본 사회를 유머러스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고요함과 격렬함의 대비는 장난스러움으로 사회의 단면을 조명하게 한다.

(한국) 수상작 : <애드벌룬> / 이우정 (한국)

심사평 :

감성적이고 경쾌한 연출이 결정적이다. 스토리텔링과 배우들의 연기, 감독의 판단력이 한데 어우러져 강렬하고 섬세하게 한 세대의 초상을 그려낸다. 세계 어디에서라도 해당될 법한 모습이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한국적이다.

특별언급) <천국도청> / 오현주 (한국)

심사평 :

감독은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강렬하고도 즐겁게 구성해낸다. 이로써 이 작품은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형상화 하면서 내면으로부터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 선재상 심사위원 : 김꽃비, 마이케 미아 호네, 아딧야 아사랏

4. 비프메세나상

수상작 : <나비와 바다> / 박배일 (한국)

심사평 :

<나비와 바다>는 장애인들의 애뜻하고 살뜰한 사랑을 다루면서도, 사랑의 결실이라 할 결혼이 마주하게 될 한국사회의 오래된 풍토, 즉 가부장제도를 똑바로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즉, 사랑이란 '감성'과 결혼이란 '현실'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감성적 몰입과 현실적 소격을 균형감 있게 이끌고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서울이 아닌 지역 기반 다큐멘터리 감독의 발굴은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수상작 : <쇼지와 타카오> / 이데 요코 (일본)

심사평 :

감독은 일본의 부당한 사법 시스템에 희생되어 살인 혐의를 받은 두 남자의 길고 긴 싸움을 보여주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반영웅'들이 가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강석필, 소다 카즈히로, 티네 피셔

5. KNN 관객상

수상작: <인디안 서커스> / 망게쉬 하다알레 (인도)

6.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FIPRECI)

수상작 : <소리없는 여행> / 모르테자 파르샤바프 (이란)

심사평 :

피프레시상은 모르테자 파르샤바프 감독의 <소리없는 여행>에게 돌아갔다. 그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인상적이 데뷔를 이뤄냈다. 파르샤바프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으로 성장 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

김선엽, 레슬리 초우, 르위타 루타, 미칼 프로차즈카, 샬라 나히드

7.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NETPAC)

수상작 : <돼지의 왕> / 연상호 (한국)

심사평 :

잔혹 스릴러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은 소름 끼치는 현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의 가치를 고통 받는 청년의 눈으로 완벽하게 묘사하였다. 주인공의 자극적이고 생생한 에너지와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 문석, 조지 왕, 콩 리티

8.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 <쌍생아> / 구스타프 다니엘손 (스웨덴)

9. 시민평론가상

-블루포인트리 : <밍크코트> / 신아가, 이상철 (한국)

-레드포인트리 : <물고기> / 박홍민 (한국)

-옐로우 : <로맨스 조> / 이광국 (한국)

10. 한국영화감독조합상

-감독상 : <돼지의 왕> / 연상호 (한국)

-남자배우 : <미스진은 예쁘다> / 하현관 (한국)

-여자배우 : <밍크코트> / 황정민,한송희 (한국)

11. CGV 무비콜라쥬상

수상작 : <돼지의 왕> 연상호 (한국)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1. 기간: 2011 년 9 월 29 일 ~ 10 월 15 일 (17 일간)
2. 장소: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영화의전당, 촬영지,
부산영상위원회, 롯데시네마, 동서대학교 버드클래식, 티파니21
3. 참가자: 17 개국 24 명
4. 지도교수진
 - 교장: 크지스토프 자누시
 - 교감: 오석근
 - 연출 지도교수: 무랄리 나이르
 - 촬영 지도교수: 조니 E. 젠슨
5. 프로그램
 -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마지막 5 분> The Last 5 Minutes / HD / 10min
 - <등대지기> The Keeper / HD / 10min
 - ② 전체워크숍 총 2 회 (디지털시네마의 미래, 기획제작론)
 - ③ 전공워크숍 총 7 회(전공별 동시진행)
 - ④ 교수진 시사 3 회 (<사좌>, <로즈우드>, <위장>)
 - ⑤ 마스터클래스 3 회 (크지스토프 자누시, 이창동, 이와이 슌지)
 - ⑥ 견학 총 2 회 (Azworks, AND 클리닉)
 - ⑥ 영화제 프로그램 참가
(뤽 베송 마스터클래스, 윤판 마스터클래스, 필름펀드토크, 토니 레인즈 강연)

6. 장학금 수여

- ① 동서대학교에서 참가자 2인에게 각각 현금 5백만원 수여
- ② 부산영상위원회&삿포로•홋카이도콘텐츠전략기구에서 참가자 2인에게 각각 현금 5십만원 수여
- ③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에서 졸업생 1인에게 시나리오 개발 펀드 1천만 원 수여 (ACF주관)
- ④ ㈜디엠라이트; 루모스에서 졸업생 2인에게 각각 LED 조명기 1대 수여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1. 아시아영화펀드(ACF)의 지원 확대

- World Documentary Exchange¹ (WDE) in Busan 개최

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주요 바이어 및 AND 선정위원 등, 아시아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아시아권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가 집단과 유럽의 세일즈사 및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는 WDE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각 행사 간 참가자 교환 등 다큐멘터리 감독 및 제작자에게 가장 최신의 지역별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 신생 펀드 운영을 통한 다큐멘터리 지원 확대

**DMZ 펀드 신설 운영: 부산국제영화제-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동 운영, 분쟁지역에서 제작을 하거나 분쟁지역을 소재로 한 아시아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작 지원금 제공

**부산영상위원회펀드 신설 운영: 부산영상위원회(BFC)의 후원으로 후반제작지원의 편수 및 금액을 늘려 지원

2. AND 배급지원펀드 수상작

① 아시아 다큐멘터리 (2편)

- 돈과 사랑 | 리칭휘 | 대만
- 아련한 봄 빛 | 유 순 | 중국, 캐나다

¹ World Documentary Exchange (WDE)

유럽-미대륙-아시아 세 대륙간 범세계적 다큐멘터리 네트워크 부산에서 출범!

WDE는 북미 최대의 다큐멘터리영화제로 자리잡은 캐나다 HOT DOCS 다큐멘터리영화제와 유럽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제 중의 하나인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그리고 아시아 대표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펀드(ACF)의 아시아다큐멘터리네트워크(AND)가 손잡고 구축한 다큐멘터리 핫라인 네트워크이다. WDE는 각 대륙의 우수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발굴·소개함으로써, 폭넓은 소재와 다양한 시각의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WDE는 유럽영상산업진흥기관인 미디어인터내셔널의 지원 프로그램 미디어 문두스(Media Mundus)의 후원으로 출범했다.

② 한국 다큐멘터리 (2편)

- 나비와 바다 | 박배일
- Jam Dacu 강정 | 정윤석, 홍형숙, 전승일, 김태일, 최진성, 최하동하, 경순, 양동규, 권효

3. 제16회 영화제 상영 : ACF 지원작 중 총 17편 상영
(극영화 7편, 다큐멘터리 10편)

(장편 극영화)

- 별이 빛나는 밤 | 린슈위 | 대만, 중국
- 집으로 데려다 줄게요 | 통퐁 찬타랑쿤 | 태국, 싱가포르
- 컷 | 아미르 나데리 | 일본, 이란, 미국
- 밍크코트 | 신아가, 이상철 | 한국
- 로맨스 조 | 이광국 | 한국
- 위험한 흥분 | 구자홍 | 한국
- 노노 | 롬멜 톨렌티노 | 필리핀

(다큐멘터리)

- 걸음의 이유 | 김철민 | 한국
- 나비와 바다 | 박배일 | 한국
- 달콤한 잠 | 데이비 추 | 프랑스, 캄보디아
- 돈과 사랑 | 리칭휘 | 대만
- 때리지 말아요, 제발! | 샤시와티 딸룩다르,P. 케림 프리드만 | 인도, 미국, 대만
- 오래된 방의 소리 | 샌딕 레이 | 인도
- 쿼터 넘버 4/11 | 라누 고쉬 | 인도
- 311 | 모리 타츠야 | 일본
- Jam Dacu 강정 | 정윤석, 홍형숙, 전승일, 김태일, 최진성, 최하동하, 경순, 양동규, 권효 | 한국
- 아련한 봄 빛 | 유 순 | 중국, 캐나다

Ⅷ.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세일즈 부스 : 총 25개국 126개 업체, 75개 부스 (Asian Film Market)
총 28개국, 177개 업체, 109개 부스 (BIFCOM 포함)
- 총 스크리닝 수 : 10월10일 ~ 12일까지 3일간 11개국 60편 64회 상영
(마켓 프리미어 33편, 3D 상영 2편)
- 온라인 스크리닝 : 258편의 영화 등록
(영화제 상영작 151편, 마켓스크리닝 동시상영 30편 포함)

APM

- 2011년 프로젝트 수 : 총 30편
- 미팅 결과 : 공식 미팅 횟수 총 432여 회

BIFCOM

- 미팅 결과 : 총 620회

시상결과

APM 프로젝트 시상

- 부산상 : 구마키리 가즈요시 <내 남자> / 일본
- 코닥상 : 박찬경 <신은 번개처럼 내린다>(가제) / 한국
- 예테보리 영화제 펀드:
 - 샤우캣 아민 코르키 <돌에 새긴 기억> / 쿠르디스탄 / 이라크
 - 아부 샤헤드 에몬 <모범 경찰관 이야기>/ 방글라데시
- CJ엔터테인먼트 어워드: 캐롤 라이<사랑의 바다> / 홍콩, 중국, 한국
- 롯데 어워드: 이무영 <새남터> / 한국
- 팬스타크루즈 어워드 : 시바지 찬드라부산 <한번 더> / 인도

IX. 부산영화포럼(BCF) 결산

1. **기간:** 2011년 10월 10일~10월 12일(3일간)
2. **장소:**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 A, B룸
3. **참가자:** 6개 학회 총 38명
4. **주제:** 21세기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5. **기조연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태국 감독), 더들리 앤드류(예일대학교 교수)
6. **참가학회:** 한국영화학회(Film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FiSAK),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 Du Cinéma), 동남아시아영화학회(Annual Southeast Asian Cinemas Conference, ASEACC), 영화제연구 네트워크(Film Festival Research Network, FFRN), 동아시아영화학회(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Film Studies, AEAF), 영화와미디어연구학회(Society for Cinema and Media Studies, SCMS)
7. **포럼 배지 발매 개수:** 총 502 개
8. **각 섹션별 참가인원 수:** 총 830 명
 - 기조발제 1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 200 명
 - 카이에 뒤 시네마 : 160 명
 - 한국영화학회 : 60 명
 - 기조발제 2 (더들리 앤드류) : 130 명
 - 동남아시아영화학회 : 80 명
 - 영화제연구 네트워크 : 60 명
 - 동아시아영화학회 : 50명
 - 영화와 미디어 연구학회 :30명
 - 라운드테이블 : 60명